



제주

098 우도와 중산간 오름 - 우도 일주와 오름 트레킹, 외국인도 감탄 099 제주 서남부 - 국토 최남단 마라도와 대정들녘 유산 답사
100 서귀포 - 칠십리 해안에 꼭꼭 숨은 절경을 찾아라

우도와 중산간 오름

우도 일주와 오름 트레킹, 외국인도 감탄

📖 프로그램 성격

- 영화 속 배경지, 섬 일주, 오름 트레킹으로 구성된 건강 체험 여행.
- 때 묻지 않는 우도 해변 트레킹, 부담 없는 오름 등반을 겸한 생태 기행.
- 사계절 가능하지만 유체가 만발하는 3~4월, 해수욕하기 좋은 7~8월, 역사꽃이 흐드러지는 10월이 적당하다.

📍 **여행 코스** : 제주공항 - 1132번 지방도 - 성산 - **우도 천진항** - **톨칸이해안** - **우도등대** - **검멀래해변** - **비양도** - **하고수동해수욕장** - **답다니탐방대** - **하우목동항** - **산호시해수욕장** - 천진항 - 성산항 - **성산일출봉** - 1119번 지방도 - 1136번 지방도 - **용눈이오름** - **아부오름** - 1136번 지방도 - 제주시 - 제주공항

🕒 **연계 코스** : 099(제주 서남부), 100(서귀포) 코스와 연계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여행 상품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장소별 소개 · 특징

➕ 제주 동쪽 끝 성산포에서 북동쪽으로 약 3.8km 지점에 위치한 **우도**는 소가 누워 있는 모습과 비슷하여 붙은 이름이다. 우도항에 들어서면 우도해녀항일기념관이 있고, 해안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소의 여물통을 뜻

🌸 축제 · 행사 정보

왕벚꽃 · 유채꽃잔치 매년 4월

☎ 제주시 관광진흥과 064-728-2783

정의골 민속한마당축제 매년 10월 초순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064-760-2483

제주의새꽃축제 매년 10월 초순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064-742-8861

🏠 숙박 · 식당 정보

절물자연휴양림 제주시 봉개동. 통나무집 12실과 야영장, 취사장은 물론 약수터, 연못, 1시간 코스의 등산로도 있다. 삼림의 집은 3만~11만원.

☎ 064-721-7421 jeolmul.jeju.go.kr

로그하우스펜션 2층 객실에서 우도 산호사해변과 성산포가 한눈에 들어온다. 숙박료 7만

~17만원. 1층 레스토랑에서 조식 가능.

☎ 064-782-8212 www.log-house.co.kr

바다풍경리조트 검멀래해변, 동안경굴과 가까이 있으며, 밤에 고깃배의 여화를 볼 수 있다. 숙박료 7만~12만원.

☎ 064-784-8335 www.woodobada.com

일출봉관광호텔 성산일출봉 가까이 있어 일출 때 쉽게 올라갈 수 있다. 총 400명을 수용

하는 **툰간이해안**이 나온다. 주상절리와 기암절벽이 볼 만하며, 영화 <인어공주>의 나무의자가 있다. 우도에서 가장 높은 우도봉에 오르면 섬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며, 파란 잔디와 바다 풍광이 잘 어우러진다. 섬뿐만 아니라 제주도 중산간 지대의 오름과 한라산까지 조망된다. 정상에는 높이 16m의 **우도등대**(064-783-0180)가 있으며, 세계 주요 등대의 모형이 전시된 등대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다. 야외 전시장, 전망대, 산책로, 사진 촬영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입구에는 영화 <연리지>에 등장하는 나무가 있다.

➡ 우도등대에서 해안선을 따라 내려오면 검은 모래가 깔려 있는 **검멀레 해변**이 나오고, 해변 끝에 ‘콧구멍’이라고 불리는 동안경굴이 있다. 입구는 작지만 굴은 별천지를 연상케 하듯 넓다. 썰물 때만 들어갈 수 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영화 <인어공주>에서 해녀들의 작업터로 나온 **비양도**를 지나 항아리처럼 움푹 파인 곳에 **하고수동해수욕장**이 숨어 있다. 코발트빛 바다에 밀가루처럼 고운 모래가 남태평양에 온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질 정도로 아름답다. 우도 최북단 **답다니탑 망대**에 오르면 제주도 동부 지역 일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섬을 돌아 동쪽으로 가면 산호가 부서져 모래밭이 된 **산호사해수욕장**이 나온다. 우리나라 유일의 산호 해변, 에메랄드빛 바다를 만날 수 있다. 영화 <시월애>의 주무대다.

➡ 제주도 수많은 분화구 중에서 드물게 바다 속에서 폭발한 **성산일출봉**(064-783-0959) 정상에 오르면 지름 600m, 바닥면의 높이 해발 90m, 면적 26만4000m²나 되는 원형경기장 형태의 분화구를 볼 수 있다. 특히 넘실대는 푸른 바다 저편 수평선에서 이글거리며 솟아오르는 일출이 볼 만하다. 이장호 감독의 영화 <공포의 외인구단> 배경지였다. 정상까지 왕복 1시간 소요. 3월부터는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유채꽃이 활짝 핀다.

➡ 제주도에 오름 360여 개가 산재해 있다. 오름은 제주인들의 자연이자 문화로, 수많은 이야기가 서려 있다. 수산리에서 송당리 방면 16번 국도를 따라 달리다 보면 봉우리 3개와 분화구 3개, 알오름 2개로 이루어진 **용논이오름**이 나온다. 정상까지는 왕복 20분 정도 걸리며, 동부 중산간 지역의 오름군과 한라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여름에는 보랏빛 도라지와 하얀 감자꽃 들녘을 볼 수 있으며, 가을에는 황금빛 억새 군락이 일품이다. 송당에서 남쪽 2km 떨어진 곳에 **아부오름**이 있는데, 건영목장 입구에 주차하고 5분 정도 올라가면 거대한 분화구와 반지 형태의 삼나무숲이 나온다. 제주민란을 소재로 한 영화 <이재수의 난> 촬영지다.



1 우도등대에서 바라본 우도 전경. 2 에메랄드빛 바다를 볼 수 있는 산호사해수욕장. 3 우도등대박물관. 4 <이재수의 난> 촬영지 아부오름.

하며, 조식 가능. 숙박료 8만~15만원.

☎ 064-782-8801

우도횃집 천진항. 우도의 고기는 육질이 좋다.

돌돔, 방어돔 등 돌 종류의 자연산 회.

☎ 064-783-0509

성산오조해녀의집 성산일출봉에서 구좌 방면

해안도로변. 해녀들이 직영하는 전복죽 집.

전복죽 1만500원, 전복회 1kg 3만원.

☎ 064-784-0893

해오름식당 일출봉주차장 입구. 80명 수용.

전복죽 1만원, 오분자기 뚝배기 1만2000원.

☎ 064-782-2256

물허벅식당 성음민속마을. 단체 100명 수용.

흑돼지생삼겹살 1만원, 평수제비 6000원, 비

빚밥 5000원. ☎ 064-787-7087

📍 기타 정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보

cyber.jeju.go.kr

우도연사무소

☎ 064-783-000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종합관광안내소

☎ 064-742-8866



제주 서남부

국토 최남단 마라도와 대정들녘 유산 답사

📖 프로그램 성격

- 제주 서남부 지역의 근대 유적지와 자연 절경을 찾아가는 역사 기행.
- 동선이 길지 않고 위험하거나 험한 코스가 없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
- 수선화 피는 1~2월뿐만 아니라 사계절 어느 때라도 여행하기 좋다.

📍 여행 코스 : 제주공항 - 1135번 지방도 - 설록차 **서광다원**(오설록) - 추사적거지 - **대정향교** - **대정들녘** (야생 수선화) - 산이수동포구(유람선) - **마라도 일주** - 일오동굴(대장금동굴) - **송악산** - **알뜨르비행장** - 모슬포항 - 1132번 지방도(제주 방면) - 일과2리 사거리 좌회전 - 해안도로(일과2리~무릉~신도~수월봉 입구) - 수월봉 - 영알해안 - 자구내포구 - 차귀도(바다낚시 체험) - 당산봉(차귀도 일몰) - 제주공항

📍 연계 코스 : 098(우도와 중산간 오름)이나 100(서귀포) 코스와 연계하여 제주 일주 3박 4일 여행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장소별 소개 · 특징

📍 서광다원(064-794-6600, www.sulloc.co.kr)은 설록차 생산업체 (주)태평양에서 운영하는 차밭이다. 한라

🌿 축제 · 행사 정보

대정고을추사문화예술제 매년 10월이나 11월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적거지 일원.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064-760-2481

제주들불축제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 전후 애월읍 봉성리 서부관광도로변의 새별오름 일대.

☎ 제주시 공원녹지과 064-728-3591
buriburi.go.kr

🏠 숙박 · 식당 정보

로그캐빈제주 한라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구릉 위 울창한 숲속에 자리 잡은 펜션으로 자신만의 별장에 온 듯한 기분을 맛볼 수 있다. 펜션 건물은 통나무집과 복층형 팀버하우스로 나뉜다. 서부관광도로와 서희선일주도로의 중간쯤인 애월읍 유수암리에 위치.

☎ 064-799-2070

www.logcabinjeju.co.kr

제주 B&B펜션 큰길에서 약간 벗어나 조용하고, 2층 베란다에서는 사계리 바다와 송악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객실의 규모와 구조도 다양해서 신혼부부, 연인, 대가족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송악산~사계리 해안도로변에 위치. ☎ 064-792-5670

www.jejubnb.com

산 정상에 눈이 희끗희끗한 한겨울에도 이곳의 들녘과 언덕은 싱그러운 초록빛의 '그린 필드'를 이룬다. 정문 근처에는 우리나라 차의 역사와 차 문화의 발달 과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오설록뮤지엄이 있다.

✦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는 제주도에서 가장 넓은 들. 추사적거지가 있는 대정읍 안성리 인근의 단산(바굼지오름) 남쪽 기슭에는 **대정향교**(064-794-7944)가 자리 잡고 있다. 조선 태종 8년(1408)에 창건된 이 향교의 분위기는 매우 독특하다. 해묵은 팽나무와 소나무가 경내를 그윽하게 굽어보아 마음이 푸근하다. 추사의 대표작 <세한도>에 등장하는 소나무의 실제 모델이 바로 이곳의 소나무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리고 향교 앞의 드넓은 들녘 너머로는 눈이 시리도록 푸른 바다와 형제섬, 송악산 등이 고스란히 들어온다.

✦ 대정향교 부근의 들녘에는 빗갈 곱고 향기 그윽한 **야생 수선화**가 많다. 드넓은 **대정들녘**에서도 대정향교와 산방산 사이의 도로변과 밭가, 송악산~사계리 해안도로변, 대정읍 상모리의 알뜨르비행장 터 등지에서 야생 수선화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곳의 야생 수선화는 흔히 관상용으로 기르는 개량 수선화는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빗갈이 정갈하고 향기가 진하다. 수선화의 개화 시기는 1~2월이다.

✦ 국토 최남단에 위치한 **마라도**는 전체 면적 300m², 해안선 4.2km에 불과한 섬이다. 송악산에서 바라보면 망망대해에 떠 있는 가랑잎 같다. 섬 전체를 한 바퀴 둘러보는 데는 켄겔음으로 1시간, 느긋하게 걸어도 1시간 30분이면 충분하다. 걷기가 불편하면 전동 카트를 빌려 타면 된다. 그러나 마라도는 스치듯이 둘러볼 관광지가 아니다. 찬찬히 머물며 그 땅의 숨결을 느껴봐야 하는 국토 최남단 섬이다. 그래서 마라도를 제대로 느끼려면 산이수동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이용하기보다는 모슬포항에서 출발하는 정기 여객선을 타는 것이 좋다.

✦ **송악산**(104m)은 가파도와 마라도, 산방산과 용머리해안, 한라산 정상까지 한눈에 들어올 만큼 조망이 뛰어난 오름이다. 송악산 북쪽의 들녘은 일제강점기에 오무라 해군항공대의 **알뜨르비행장**이 들어섰던 곳이다. 지금도 들녘 곳곳에는 당시 건립된 비행기 격납고의 잔해가 남아 있다. 송악산 기슭의 해안절벽 아래에는 일본군

이 군수품과 어뢰정을 숨겨두기 위해 파 놓은 인공 동굴도 많다. 모두 15개여서 '일오동굴'로도 불리는데, 드라마 <대장금>의 촬영지로 알려진 이후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는다. 그밖에도 송악산~사계리 해안도로는 제주도에서 가장 아름답고 운치 있는 해안 드라이브 코스 중 하나로 손꼽히는 길이다.



1 산방산이 보이는 대정들녘의 밭둑에 무리 지어 핀 야생 수선화. 2 단산(바굼지오름)의 남쪽 기슭에 자리 잡은 대정향교. 3 차귀도를 지척에 둔 자구내포구의 한가로운 풍경. 4 드넓은 대정들녘의 알뜨르비행장 터에 남은 격납고 잔해. 5 추사 김정희가 유배 생활을 한 대정읍 안성리의 추사적거지.

성원식당 현지 택시기사들이 제주 최고의 맛집으로 꼽는 곳이다. 게, 낙지, 새우, 조개 등 각종 해물이 푸짐하게 들어간 해물탕을 주문하면 전복회와 옥돔구이가 덤으로 나온다. 송악산~사계리 해안도로변에 위치.

☎ 064-794-0085

해녀식당 모슬포항 입구 삼거리에 자리한 생선회, 자리물회, 회덮밥, 생것국, 해물뚝배기

등 해물 요리를 잘하는 집이다. 광어, 도미, 쥐치, 병어 등의 생선회가 푸짐한 회덮밥이 인상적이다. ☎ 064-794-3597

기타 정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064-710-3321

jejoutour.go.kr

모슬포 삼영해운 (마라도 여객선)

☎ 064-794-3500

www.wonderfulis.co.kr





칠십리 해안에 꼭꼭 숨은 절경을 찾아라

📖 프로그램 성격

- 서귀포 일대의 숨어 있는 해안 트레킹 코스로 건강 체험 여행이 가능하다.
- 학생들의 극기 훈련을 겸한 생태 여행 코스로 적합하다.
- 트레킹 하기 좋은 봄가을과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7~8월이 적기다.

📍 여행 코스 : 서귀포 - 1132번 지방도 - 예래동 좌회전 - 서부하수처리장 - **질시해안** - 논짓물 - 조근모살 주상절리대 - 하얏트리젠시호텔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 1132번 지방도(서귀포 방면) - 외돌개 - 서귀포 - 1132번 지방도(남원 방면) - **쇠소깍** - 1132번 지방도(남원 방면) - 남원큰엉 - 제주 신영영화박물관

📍 연계 코스 : 098(우도와 중산간 오름), 099(제주 서남부) 코스와 연계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여행 상품을 구성할 수 있다.

🔍 장소별 소개 · 특징

📍 서귀포 칠십리 해안에 걸쳐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절경이 숨어 있다. 환해장성이 길게 이어진 예래동 **질시해안**(예래동사무소 064-760-4841)에 서면 서귀포 바다와 한라산이 한눈에 잡히며, 곳곳에 웅덩이와 작

📅 축제 · 행사 정보

서귀포 칠십리축제 9월 하순.
☎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064-760-2653
제주감귤축제 격년제(짝수년) 11월경.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정책과
064-710-6872

🏠 숙박 · 식당 정보

서귀포자연휴양림 한라산으로 가는 1100도로에 있다. 숲속의 집 7실, 복합휴양관 1동, 3만 2000~9만8000원 ☎ 064-738-4544
huyang.seogwipo.go.kr
재즈마을 서귀포시 예래동에 있는 전원형 펜션 단지. 원룸 형태, 1층 주방과 2층 침실인

복층으로 구성. 숙박료 13만~25만원.
☎ 064-738-9300 www.jazzvillage.co.kr
유로펜션클럽 유럽식 건물의 럭셔리한 분위기가 특징. 정방폭포가 도보로 10분 내에 있다. 숙박료 9만~24만원.
☎ 064-763-1003 www.epclub.co.kr
골림성 호근동 일주도로변. 통나무집형, 펜션

은 육각 돌기둥도 감상할 수 있다. 해안선을 따라가다 보면 바닷물과 용천수가 만나는 곳에 물을 가둬 만든 천연 수영장 **논짓물**이 나온다. 한여름이면 예래·효돈해변축제가 열린다. 조개 채취와 낚시도 즐길 수 있다.

❖ 논짓물에서 서귀포 바다 방향으로 더 내려가면 서부하수처리장이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하얏트리젠시호텔까지 **조근모살 주상절리대**가 펼쳐진다. 신이 다듬은 듯 겹겹이 쌓인 검붉은 사각, 육모꼴의 돌기둥이 하늘을 찌를 듯 수직으로 서 있는데, 최대 높이 40m, 폭 1km에 달한다. 조근모살해수욕장을 지나 절벽 위로 올라가면 하얏트리젠시호텔이 나온다.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뒤쪽 해안에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064-738-1532)가 있다. 50만 년 전에 형성된 주상절리 돌기둥은 화산 폭발로 흘러내린 용암이 바닷물에 닿아 급속히 수축하면서 갈로 정교하게 자른 듯한 육각형 기둥을 이뤘다. 높이 20m내외, 폭 3.5km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입장료 어른 2000원, 청소년 1000원.

❖ 오랜 세월을 바람과 파도에 씻기며 큼지막한 기둥바위가 된 **외돌개**(064-760-3031)는 장군처럼 위풍당당해 보인다고 하여 '장군석'으로 불린다. 주위에는 선녀바위 등 기암괴석이 많고, 바다에는 범섬과 새섬 등 아름다운 섬들이 자리 잡았다. 특히 수려한 해안 경관을 끼고 돛배낭골까지 1.7km에 이르는 해안 산책로는 숲길 사이로 나무 데크가 설치되어 바다를 바라보며 트레킹 하기 좋다.

❖ 돈내코계곡을 거쳐 효돈천은 **쇠소깍**에서 바다와 맞닿는다. 깊은 수심과 용암으로 이루어진 기암괴석, 울창한 소나무 숲이 조화를 이루는데,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전에 분출한 조면암으로 구성되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 둥글고 깊은 포트홀이 형성되어 있으며, 제주도 전통 어선 테우를 타볼 수 있다. 마을 공동체에서 운영하며, 예약은 받지 않고 현지에서 선착순으로 탑승한다. 어른 1만원, 어린이 5000원.

❖ '큰 바위가 바다를 집어 삼킬 듯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언덕'이라는 의미가 있는 **남원큰영**은 해안절벽을 따라 2km의 산책길로 전망대와 바다를 조망하는 벤치까지 마련되어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좋다. 절벽 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영화 박물관인 **제주신영영화박물관**(064-764-7777, www.jejusta.co.kr)이 있다. 영화의 탄생, 발전, 제작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관람료 어른 6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

제주신영영화박물관 대신 남원읍 하례2리에 있는 제주농업생태원(064-733-2801)을 방문해도 좋다. 감귤 전시관, 감귤 판매관, 감귤 온실 등을 갖추고 있다. 11월 중순부터 12월 20일경까지는 감귤 수확 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감귤 체험도 가능하다. 입장료·주차료는 없다.



1 외돌개, 2 육모꼴의 돌기둥이 하늘을 찌를 듯한 조근모살 주상절리대, 3 남원큰영 해안절벽, 4 돛배낭골 해안 산책로.

형, 호텔형 등 다양한 숙박 시설을 갖추고 있다. 숙박료 8만~17만원. 감귤 따기 체험 가능.
☎ 064-739-3331 www.gyulimsung.com
남궁서민회집 서귀포항과 가까워 싱싱하고 저렴하다. 돛 종류의 자연산 회.
☎ 064-763-1240
대우정식당 서귀포 매일시장 근처. 오분작들

슬밥 9000원. ☎ 064-733-0137
해궁미락 서귀포항 근처 갈치 요리 전문점. 갈치모듬(갈치회, 구이, 조림) 5만~8만원.
☎ 064-732-5577 www.haigung.co.kr
진주식당 서귀포 라이온스호텔 앞. 전복뽕배기 1만원, 옥돔구이 2만5000원
☎ 064-762-5158

기타 정보

서귀포시 관광협의회 www.jejusta.or.kr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 064-760-2651
서귀포 종합관광안내소 ☎ 064-732-1330
서귀포유람선 ☎ 064-732-1717
서귀포점수함 ☎ 064-732-6060